

# 신안군 햇빛·바람·군민펀드 연금에 주민들 행복지수 UP

### 햇빛아동수당 80만원에서 내년부터 120만원으로 증액 '신안군민펀드' 출시...차등없이 모두 참여 고수익 기대

신안군이 최근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출시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안 주민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사업과 글로벌 해상풍력사업의 이익공유체로 빛·바람·군민펀드 등 3종 세트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박우량 군수의 민선4기 출범때만 하더라도 신안군 주민들의 생업은 어업과 농업이 전부를 이루는 생활고를 겪었으며 교통 환경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이를 지켜본 박우량 군수는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군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당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고난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변화하는 지구 기후 위기와 신안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

너지 사업이 신안 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최초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익공유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이익금이 지급되는 등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주민들은 군의 행정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전격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해상풍력사업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수용하고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어업인과 주민 모두 동참했다.

이에 해상풍력 산업도 2030년까지 8.2GW를 완공하면 군민들에게 약 3000억원의 이익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부유식 10GW도 추진 중으로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개발단지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안 군민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배당금 연금제로 삶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사업에 수 십 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을 예상하고, '신안군민펀드'를 출시했다. 신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차등없이 참여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에서 지구위기 대응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며, 초기 시설만하면 빛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 높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재 공급과 고임금 등 정기적으로 운영 자금이 투입되는 생산·제조 등의 일반산업과는 다른 특화된 산업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펀드 출시 역시 안전성과 고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처럼 신안 군민이 태양과 바람, 군민펀드 3종 세트 연금을 받게 되면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신안주민이 받고 있는 태양연금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가족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연간 최대 68만원을 받고 있다. 18세 이전까지 햇빛아동수당을 80만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40만원이 늘어 120만원을 받게 된다.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  
지난달 27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또 내년부터는 자은면을 중심으로 120만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는 내년 5월 출시 예정이다. 신안군민 우선투자 가능한 20년 만기 연금형 펀드로 20년간 기본 PF금리 5.5%에 플러스 추가 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섬 속의 섬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 온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며 "이제부터라도 험난한 지난 세월의 보상을 받는 마음으로 3종 세트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403명 모집

### 11일까지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목포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총 403명이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

지 일자리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는 일반형 일자리아(전일제·시간제)는 64명을 선발한다. 공공 및 복지시설에 배치돼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복지일자리아(319명)와 특화형일자리아(20명)는 민간위탁수행기관(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사회 내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경로당 및 복지관 안마서비스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아사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자리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중국 염성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협약 체결



### 기술 협력·생태계 구축 강화 등

영암군은 최근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도시는 업무협약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 협력 및 산업 생태계 구축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도모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한·중 무역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영암군 방문단과 염성시에 이뤄졌다.

염성시는 중국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828만 명의 대도시로 미래 자동차, 신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화지역이다. 특히 종합보세구

역과 한국공업, 광전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등으로 구성된 4개의 경제기술개발구를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인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영암군 방문단은 친환경 특장 전기차 전문기업인 '열달 전용차 유한공사'를 방문해 전기 특장차와 신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을 시찰하고,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서 논의된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자동차와 신에너지 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군, 청년마을에 '농능길 치유 숲' 조성



청년마을 농능길 치유 숲.

### 소나무 군락지·숲속 정원 등

해남군은 청년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황산면 옥동리에 농능길 치유 숲이 조성됐다고 4일 밝혔다.

농능길 치유숲은 옛 옥동초등학교 건물 뒤쪽으로 이어진 소나무 숲을 새롭게 가꾸어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농능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해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로 선정되면서 주민·단체 참여 숲으로 조성되었다.

농능길 치유 숲은 쪽편은 소나무 군락지가 특색 있는 곳으로, 평소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 받아왔다.

기존에는 폐교 건물 뒤편의 학교 숲이었으나 낡은 야외무대와 벽면 클라이밍 공간 등을 철거하고, 잡목으로 우거진 숲의 밀도를 정리해 소나무의 수려한 경관미를 뽐내게 하였다.

경사가 완만하고 쉽게 오갈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으며, 넓은 잔디밭을 정비해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숲 아래쪽으로는 맥문동을 식재해 여름철 보랏빛 숲속 정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농능길추진위원회를 통해 숲속 미술관의 개념을 도입해 작품전시 및 창의적인 야외 공간 이용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남군 황산면 옥동에 마을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농능길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해남형 청년 거점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치유 숲 조성으로 청년마을을 조성으로 관련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치유 숲이 지역민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재원 확충 나선다

###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완도군이 연말을 앞두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11월 21일, 군과 읍면 세정 업무 담당자, 팀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주재로 읍면별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체납 원인

분석과 향후 조치 계획, 그리고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금융자산 동결, 공매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며, 체납액 징수를 가속화 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1차로 올해 발

생분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읍면과 선제적 징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올해부터는 각 읍면에 체납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납세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필요시 관허 사업 제한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만큼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먹거리지수 2년 연속 최우수...농식품부장관상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한 '2024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해남군은 2022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먹거리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확실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총 누적매출 15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각계 각층 군민들로 이뤄진 먹거리 위원회

를 통해 민관협치 방식으로 지역의 먹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은 농촌형 먹거리 정책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동물방역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진도군 관계자들이 전남도 동물방역 위생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 도, 감염병 방역대책 등 높게 평가

진도군은 2024년 전남도 동물방역 위생 시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진도군은 구제역·람피스킨·고병원성 AI·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과 축

산농가 방역 실태점검, 계란 안전성 확보와 축산물 위생감시 등 중점 평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가축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